

부동산 규제에도 꺾일 줄 모르는 광주 집값...47주 연속 상승

한국부동산원 5월 4주 아파트 가격 동향...광주 0.13% 상승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북구 0.24%로 최대 상승·동구 0.11% 뒤이어 북구·동구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 주도...청약시장 강세 여전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광주지역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최근 광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의 경우 도시철도 2호선과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호재 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 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다, 최근 저가의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까지 겹쳐 집값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

됐다. 광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주요 지역인 북구의 집값이 상승세를 타면서 지역사회의 찬반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도 예상된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올랐다. 전주

(0.18%)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감소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7월 첫째 주(6일) 이후 4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북구는 0.24%나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동구(0.11% ↑)와 광산구(0.09% ↑), 남구(0.08% ↑), 서구(0.06% ↑) 등 광주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여기에 북구는 지난 4월 19일 0.12% 오른 이후 같은 달 26일 0.20%→5월 3일 0.20%→10일 0.26%→17일 0.32% 등 지속적인 집값 오름세를 보이면서 광주지역의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이끌어가는 분위기다. 올해 누계 상승률도 2.98%로, 광산구(3.08% ↑)에 이어 두 번째로 집값이 많이

올랐다.

현재 북구지역 집값은 신용동 신축 아파트와 역세권,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고, 구축 매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몰리려는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북구와 동구가 광주의 전반적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끄는 분위기다"며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구는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에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의 구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광주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 것으로 알려진 북구는 물론, 동구도 최근 집값 상승

조짐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지역사회 찬반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와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호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벌써 구축 매물에 대한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일부 구역만 규제를 해제할 경우 투기세력의 유입 등으로 인한 집값 상승 등 부작용 역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좋은 입지의 중저가 아파트 수요가 높아져 집값이 오르고 있고 지역 내 청약시장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는 중이다"며 "타 광역시를 제외하고 광주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경우 자칫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1달러부터 부담없이 환테크...광주은행 '달라진 외화적금'

누적 6501좌...전년비 81% 급증 최대 90% 환율 우대·3회 중도인출

환율 변동에 따라 자금을 운용하는 '환테크'가 올해도 재테크 상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27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 외화적금 누적 가입 좌수는 지난달 말 기준 6501좌로, 1년 전(3589좌)보다 81.1%(2812명) 급증했다.

올 들어 1월 누적 가입 좌수는 5719좌로, 석 달 동안 782명이 광주은행에서 환테크를 시작한 것이다.

4월 말 기준 외화적금 누적 잔액은 496만3854달러(55억원)로, 지난해 같은 달(147만달러)의 3.4배(237.3% ↑) 수준으로 늘어났다. 지난 1월(419만달러)에 비해서도 18.4% 늘어난 금액이

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자 달러가 쌀 때 사두려는 고객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는 환테크와 함께 주식과 그림, 빌딩, 지식재산권, 저작권 등을 소수점 이하로 나눠 소유하는 '소수점 투자' 열풍이 반영됐다.

광주은행은 투자 흐름에 맞춰 1달러부터 시작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환테크를 경험할 수 있는 소액 외화적금 상품 '달라진(DOLLAR 眞) 외화적금'을 내놓았다.

이 상품은 영업점 방문은 물론 스마트뱅킹과 모바일앱뱅킹 뿐만 아니라 금융 플랫폼 '토스'(toss) 앱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미화 1달러부터 최대 1만달러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자동이체 설정도 가능하다.

가입 고객에는 적립 때마다 기본적으로 50% 환율을 우대하고, 자동이체로 1건당 100달러 이상 입금하면 최대 90%까지 환율을 추가 우대한다.

외화현찰이 필요할 때 3회까지 인출할 수도 있다. 외화현찰 수수료는 면제된다.

김현성 광주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저성장·저금리 시대에 미국달러에 부담없이 투자해 볼 수 있도록 출시한 '달라진 외화적금'은 안전자산 선호와 소수점 투자 등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재테크 상품"이라며 "변화하는 외환 수요와 트렌드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의 '2021년 4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달러예금 잔액은 817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백희준 기자 bhj@

전남 5명 중 1명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

고령인구 비율 20.7% 전국 최고

지난해 전남 지역엔 5명 중 1명 꼴로는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고령화 업무 전담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27일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통계청 '2020 고령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 고령인구 비율은 20.7%로, 경북과 함께 17개 시도 최고를 기록했다.

전남·경북에 이어서는 전북(20.6%), 강원(20.0%), 부산(18.7%), 충남(17.7%), 충북(17.0%), 경남(16.5%), 대구(16.0%), 서울(15.4%), 제주(15.1%), 광주·대전(각 13.7%), 인천(13.4%), 경기(12.7%), 울산(12.0%), 세종(9.3%)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4년 후인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UN이 규정한 고령사회 기준에 따라 전남·경북·전북·강원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들었으며, 광주와 대전·인천·경기·울산·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고령사회(14% 이상)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양 의원은 이날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써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성능평가 무료 지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비용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는 제품이 운영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유해 트래픽에 적절하게 대응하는지 등 정보보호제품의 처리 성능을 종합적으로 시험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비용부담 없이 제품 품질을 향상할 수 있다. 성능평가와 심의를 통과하면 인터넷진흥원 확인서를 받아 제품 공신력도 높일 수 있다.

컨설팅 지원대상 제품군은 총 11종이다. 진흥원은 기업들의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총 19개 제품에 대한 평가비용과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추억의 파배기 맛보세요" 27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들이 지하 1층 델리매장에서 국내산 참쌀로 만든 파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 상품은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추억의 먹거리' 대전에서 만날 수 있다. <롯데쇼핑 제공>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밤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쯤되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남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